

삼성·하이닉스가 끌어올린 9000피... 반도체 솔림은 '숙제'

반도체 3대 종목 시총 비중 55.09% 증시 호황이지만 체감 장세 괴리 커 HBM·AI 수요에 목표가도 줄상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국내 증시 솔림 현상을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코스피가 9천피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5% 오른 8801.4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증시와 비교해도 훨씬 뜨거운 상승세다. 한국 증시의 파죽지세는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등의 호재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업황 회복 효과가 컸다. 2일 삼성전자 주가는 36만500원까지 치솟았고, SK하이닉스도 236만원을 기록하는 등 시총액 1·2위 기업이 쌍끌이로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투자업계에선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가파른 상승 폭만큼 비대해진 반도체 솔림에 대한 우려다. '두 반도체 공룡'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코스피는 사실상 단일 업종의 항방에 명운이 걸린 구조가 됐다.

◆지수는 '최고치+상승', 체감은 '하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등 반도체 3대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09%로 집계됐다. 2024년 말 25.0%에서 지난해 말 37.5%로 오른 데 이어 55%를 넘긴 것이다.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일 장중 주가가 1.29%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5350억 달러

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 5240억 달러의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총 순위 10위에 올랐다. 기존 11위였던 삼성전자는 이번 상승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9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5610억 달러로,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2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순위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시총 1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총 순위 30위 안에 2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들였다.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두 종목이 삼성전자(30조2280억원)와 SK하이닉스(25조6470억원)였다. 이유 있는 매수세다. 산업통상부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였다.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4% 증가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형주 편중 현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27일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18개의 최근 5거래일 거래규모는 48조5089억원에 달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증시는 부진했다. 이날 종가 기준 상승 종목이 271개였던 반면 하락 종목은 635개에 달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4100~4200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거품 vs 닷컴버블... "그때랑달라"

한국만의 얘기도 아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달 29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트넷은 "투기적 가격 움직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는 버블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이 버블 종료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승세는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주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로 주가는 88% 급등했고 AMD 역시 46%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5월 두 달 동안 25% 급등하며 최근 20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두고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는 믿음이 더 강하다. 1990년대 후반 실적과 괴리된 채 주가가 올랐던 닷컴 기업과 달리, 현재는 반도체를 사들이는 하이퍼 스케일러(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와 반도체 기업 모두 실제 이익을 낸다.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최근 금융 시장 투자환경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공포보다 탐욕이 더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가 낙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한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은 충분하다"라고 진단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한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년 전 9.2배에서 현재 8.1배로 낮아졌다"며 "지수보다 기업이익의 상승폭이 더 커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익 전망 상황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61만원, 400만원으로 올렸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5만원으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60만원대 목표주가를 내놨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씨티증권이 450만원, KB증권이 430만원, 미래에셋증권이 410만원을 제시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를 단순 평균하면 삼성전자는 62만원, SK하이닉스는 423만원 수준이다. 현재 주가 대비 각각 70% 안팎, 80% 안팎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HBM 고객사들과의 3~5년 수준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수요 가시성 확보와 큰 폭의 가격 인상이 향후 두 회사의 실적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378조원, 272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 570조원, SK하이닉스 423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40대가 큰 손

전체 28.9%... 투자금액 1조225억 지난해 개인 주주수 50대 가장 많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의 투자자 가운데 연령별 기준 40대가 투자자 수나 총투자금 기준으로 최대 투자자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주식 시장에서는 50대와 60대가 '큰 손'이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3일 한국투자·삼성·KB·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의 4영업일(5월27일~6월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인버스 2종은 제외)의 투자자 및 투자금액을 합산한 결과, 투자자수는 7만850명, 투자금액은 총 3조27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4623만원에 이른다.

이 중 투자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만489명)로 전체 28.9%였다. 총 투자금액도 1조225억원으로 31.2%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컸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는 40대가 '큰 손'에 오른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주주수는 50대(23.1%)가 가장 많았고, 40대(21.8%)는 두 번째였다. 소수주식수도 50대(34.4%)와 60대(26.6%)에 이어 40대는 18.6%에 그쳤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는 4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 상품의 투자자수는 50대(28.7%)도 4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30

대도 22.2%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0대는 11.5%였다.

20대도 6.5%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하 투자자수가 전체 약 60%에 육박해 젊은 층이 더 많았다.

20대 미만의 투자자도 일부 있었다. 투자금액은 40대에 이어 50대가 27.9%(9125억원)를 차지했다. 투자자수는 40대와 50대가 비슷했지만, 투자금액은 40대가 10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30대도 약 20%(19.4%)를 보였고, 60대는 12.9%, 20대는 5.5%를 나타냈다. 투자금액도 40대 이하가 약 60%로 50대 이상보다 많았다.

다만,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70대 이상(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40대(5000만원)는 50대(4500만원)보다 많았다.

/허정윤 기자

젠슨 황 한마디에 급등... 로봇주 상한가

로봇 대형주, 평균 주가 상승률 155% 젠슨 황 CEO 향한 기대감도 영향

코스피가 9000선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로봇주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 '로봇주' 주도 장세가 펼쳐지자 "로봇만 스쳐도 급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50조원 이상인 대형주 중 로봇산업으로 주목받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LG전자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155%에 달했다.

종목별로 보면 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전자가 9만1400원에서 39만2500원까지 뛰며 329%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1일과 29일, 이달 1일 등 세 차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최근 물류에 쓰이는 '블로이 캐리봇'에 이어 홈로봇 '블로이드' 등으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인 '아이작 그루트'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현대차는 144%, 현대모비스와 기아는 각각 105%, 40% 올랐다. 현대차와 기아는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톤디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기대를 한몸에 받은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 핵심 부품 공급처로 부각되고 있다.

LG전자를 비롯한 로봇주들은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젠슨 황 엔비디아 최

고경영자(CEO)의 언급과 오는 4일 저녁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그의 방한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하반기 로봇주가 부각될 글로벌 이벤트들이 주목된다.

현대차는 3분기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한 훈련 사업 RMAC(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개시한다. 이는 로봇의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공정 검증, 작업 데이터 축적, 재학습을 있는 피지컬 AI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엔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V3) 공개가 예고돼 있다.

테슬라는 올 연말이면 연간 100만대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상용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양산에 성공하면 인건비 부담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로봇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증시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하는 이벤트도 심의 절차에 따라 7~8월 사이로 예정돼 있다. 4족 로봇 등에 특화된 기업이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유니트리라는 지난 1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점판(허황반·과학기술주 전용 거래 시장) IPO 심사를 통과했다.

문제는 과열 우려다. 사업의 실제보다 '이름표'가 주가를 밀어 올리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파른 주가 상승은 과거 IT 버블이나 이차전지 투자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네트워크인프라 ETF' 3년 수익률 758%

KB운용, 국내 주식형 ETF 중 1위

KB자산운용은 'RISE 네트워크인프라 ETF'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인공지능(AI) 투자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R

ISE 네트워크인프라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81.69%, 145.77%, 313.85%, 758.11%, 923.30%에 달한다. 모든 구간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국내 주식형 ETF 중 1위(6/1 기준)다.

최근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서버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반도



체와 패키징 기판, 인쇄회로기판(PCB) 등 핵심 부품 공급망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허정윤 기자